

# 추석날 둘러앉아 해봄직한 전통놀이의 복원

박덕규 외 펴냄 「박씨네 시조놀이」

해마다 추석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일컬어질만큼 엄청난 인파가 저마다 귀향길에 나선다. 고속도로나 국도 할 것 없이 온나라 안의 도로들이 사람과 차량의 물결로 가득차는데, 그러나 정작 먼길을 달려 고향에 모인 친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란 매우 드물다. 차례나 성묘 같은 의전적 행사를 빼고 나면, 술을 마시거나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를 치는 일이 고작이다. 이런 사정은 귀향길에 나서지 않고 집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며칠간의 연휴 기간 내내 방안에서 뒹굴며 텔레비전의 특집프로그램을 질리도록 보는 게 고작이다. 우리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여가를 채울만한 의미있고 유익한 놀이 문화가 실종돼버린 지 오래다.

## 시조로 즐기는 전통민속놀이의 현대화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박덕규씨가 최근 덕권, 덕길씨 등 두 형과 함께 만들어 펴낸 「박씨네 시조놀이」(꾸뭇출판사)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서가 담긴 문학작품으로 전수되고 있는 시조를 놀이로써 음미하고 향수하던 민속 시조놀이를 새롭게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경북 안동 출생인 박덕규씨네 형제가 어릴 적의 놀이경험을 되살려 펴낸 이 「박씨네 시조놀이」는 총 100수의 시조를 활용해 '읽는 패' 100장과 '깔패(일명 그림패)' 100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읽는패에는 시조 한 수의 전문과 간략한 해설이 실려 있고, 깔패에는 읽는패에 적힌 시조들의 종장만을 담고 거기에 그 시조 작가나 시조에 얽힌 그림을 곁들이고 있다.

##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박씨네

### 민속놀이」는 문학작품으로 전승되는

### 시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 끈다. 시조 100수의 전문과 종장을

### 담은 패 각 100장씩으로 이루어져

### 있는데, 시조 전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 종장이 적힌 패를 먼저 찾아내는 편이

### 이기는 식으로 승부를 겨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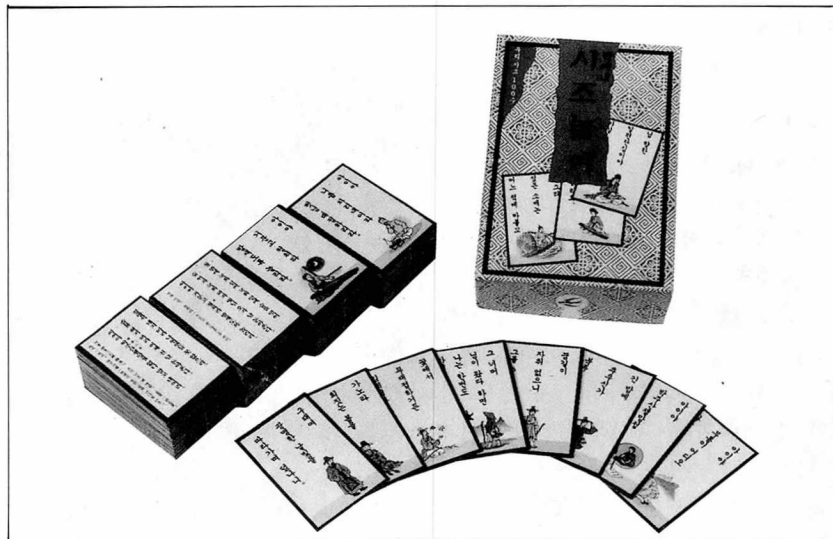
놀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흥미롭다. 읽는 패를 들고 경기를 진행시키는 낭송자가 시조의 전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경기자가 그 시조의 종장이 실린 깔패를 얼마나 빨리 찾아 내느냐로 승부를 겨룬다. 가령, 낭송자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이라며 양사언의 시조를 읽어나가는 동안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는 종장이 적힌 깔패를 먼저 찾아내는 쪽이 이기는 식이다. 따라서 시조를 많이 알고 많이 외우는 사람이 자연히 승부에 유리하다. 놀이라고 하기에는 일견 지나치게 단순해 보이는 흠이 없진 않지만, 깔패를 잘못 찾을 경우 벌



민간에서 전승되던 고유의 민속놀이를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박씨네 시조놀이」.

칙을 가한다든지, 일대일 놀이에서 다중집단 놀이로 발전시킨다든지 하면 의외로 흥미로운 응용이 가능해진다.

## 60년대까지만 해도 민간에서 성행

「박씨네 시조놀이」를 통해 현대적으로 부활한 시조놀이는 사실 60년대까지만 해도 영남 일원에선 결코 드물지 않았던 家傳놀이로, 박덕규씨에 따르면, 시조놀이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한다. 시조놀이를 하며 성장기를 보냈다고 술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가 하면, 어떤 집안에선 딸을 시집 보낼 때 “콩기름을 발라 패를 딱딱하게 만든 시조놀이 한벌을 혼수 삼아”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 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1941)에도 ‘歌牌’라는 이름으로 이 시조놀이가 소개돼 있어 일제시대부터 민간에서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놀이방법이 오

늘과 다르지 않다.

“고시조를 적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60매 가량 준비한다. 딱지를 두벌로 나누어 한벌은 좌중에 펼쳐놓아 집어내는 딱지로 하고, 한벌은 한 사람이 들고 유창하게 읊는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읊는 시조가 적힌 딱지를 펼쳐진 딱지 가운데서 재빨리 찾아 집어내는 놀이다.”

일본의 경우 俳句를 이용한 ‘歌闘’가 텔레비전을 통해 경연대회로 치러질만큼 일반화돼 있다고 전하는 박덕규씨는 이 「박씨네 시조놀이」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명절 때 즐겨할 수 있는, 학습과 게임을 겸한 전통 민속놀이를 널리 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시조패 200장과 함께 놀이 방법 해설과 놀이에 활용된 시조 100수의 전문을 수록한 소책자 「시조로 놀자」가 따로 곁들여져 있다.

## 소유

올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능가하는 치밀한 구성력과 지적 분위기!



윤 희 기 譯

영국 최고 문학상 ‘부커(Booker)상’ 수상작  
비토리아 시대의 천재 시인 랜돌프 예쉬, 그리고 그와 함께 시와 사랑을 나누었던 여류시인 크리스토퍼 리모트... 한 쌍의 젊은 학자들이 이 둘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기묘한 문학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바이어트는 ‘스팅달’과 ‘조이스’에 비견할 만한 작가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죽었고 그녀는 살아있다는 것 뿐이다.  
—LA 타임즈 북 리뷰紙—

정가 : 5,500(상하 각권)

## 얼음꽃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연구소에서 벌어지는 엽기적인 연쇄살인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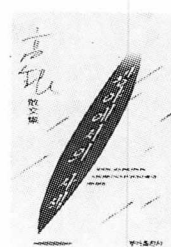
이웅범 장편 추리소설

당신의 사고력을 가늠케 하는 소설  
죽음과 영혼, 신과 인간과의 교감 등 문화, 정신, 역사를 넘나드는 작가의 해박한 지적 능력과 특유의 추리기법은 독자로 하여금 지적 흥분감과 함께 묘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값 : 5,000원

## 광야에서의 사색

역사와 사상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버린 듯한 작가 고은의 자서전적 수필집



“거기서 나는 내 운명이 온통 감전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율이 일어났다. 실로 아무것도 아닌 1단짜리 작은 기사가 나를 그렇게 사로잡은 것이다. 이제까지의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의외의 충격이 나를 슬취한 저거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 창계전에서 노동자가 분신했다는 기사였다. 이젠 무엇인가? 이젠 무엇인가? 그 무렵 나는 전후의 실존주의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이 얼마나 청년의 어이없는 마음과 똑같은 것인가를 괜히 분개하고 있었다.  
(만인의 시, 만인의 진실) 중에서

정가 : 5,000원

동아출판사 ☎861-4818